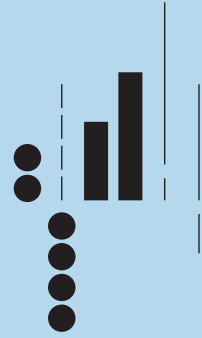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공동체
COLLECTIVE
CITY

비엔날레 소개

주제

집합도시

총감독

임재용, 프란시스코 사닌

기간

2019.9.7. - 11.10.

주전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대림상가,
서울역사박물관 등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는 건축과 도시를 매개로 하여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상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참여하는 국제 행사이다. 서울비엔날레는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의 학문에 더불어 문학, 공연, 영화 등 예술 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름으로써 현대의 도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대중, 전문가, 예술가와 건축가,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업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자인과 정책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019 서울비엔날레의 목표는 시민들이 세계 도시의 창조와 변화 과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이들 시민이 각 도시의 사회화 및 도시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집합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비엔날레는 전 세계 도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도시 건축 분야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BIENNALE INTRODUCTION

Theme

Collective City

Co-directors

Jaeyong Lim, Francisco

Sanin

Period

7th September –

10th November, 2019

Main Venues

Dongdaemun Design

Plaza (DDP),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Sewoon

Plaza, Daelim Plaza,

Seoul Museum of History

etc.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ganized by

Seoul Design Foundation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BAU) engage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in research and debate on the future of cities around the world. Participants from the fields of sociology, geography and economics to literature, art, theater, and film have been invited to put forward innovative design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actively involve the public to engage with experts, artists, architects and policy makers, in intense debate on our current state of urbanization.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19

The 2019 edition aims to create a space for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of the public in the cre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ir cities, and to develop new collective strategies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the socio-urban dynamics of the city. The biennale will serve as a global platform in urban architecture to share experiences of global cities and to explore innovative responses to their multiple challenges.

총감독



임재용은 건축사사무소 OCA(Offic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의 대표이다. 그는 사회, 경제, 문화의 전반적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건축에 담아내는 새로운 유형들을 찾는 건축가이다. 이번 비엔날레도 도시의 새로운 유형을 찾는 작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 그는 'Seoul: towards a Meta-city' 전시의 총괄 커미셔너를 맡았고 2011-2012 한일 현대건축교류전의 총감독이었다. 또한 2011년 UIA대회 서울홍보관 커미셔너이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Jae Y. Lim is a principal architect of OCA (Offic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Based on his perception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hanges, he strives to reflect them in his architecture through new prototypes. This biennale is also an extension of the task of finding new prototypes of cities. He served as director of 'Seoul: towards a Meta-city' exhibition which was held at Aedes Gallery in 2014 and Korea-Japan Contemporary Architecture Exchange Exhibition in 2011 and 2012. Also he was a commissioner of UIA promotion Hall in 2011. He received his B. Arch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 Arch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CO-DIRECTORS



프란시스코 사닌(Francisco Sanin)은 시라큐스 대학교 교수이다. 프린스턴 대학교, AA스쿨, 킹스턴 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객원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지역의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공동 커미너서, 2011 광주 비엔날레 디자이너 및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큐레이터로 활동한 바 있다.

Francisco Sanin is professor at Syracuse University. He has taught at Princeton University, Architectural association, Kingston University and KNUA (Korea). He maintains a professional practice with works in Asia, Europe and Latin America. Sanin was co-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for the 2008 Venice Biennale and the designer of the 2011 Gwangju Biennale 2011, and the curator for the Seoul City Architects Forum 2017.

집합도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

예나 지금이나 도시는 경합의 장이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절충의 공간이자,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와 상황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도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갈등과 절충의 공간이 가진 복잡하고 모순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분분한 권리와 가치를 인지하고, 도시 내 상충하는 주거권, 천연·사회자원, 교통, 물, 정치적 자유, 인종과 젠더 권리, 국내 실향민 및 세계 난민 위기 등에 대한 권리를 물리·정치적 구조로 인식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도시는 생산적인 구조이자 부와 권력을 집결하는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상업·기술적 비전을 갖는 새로운 도시 모델은 도시의 집합성에 도전장을 내밀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환경적 생존에도 연여가 되고 있다. 도시 홍보에서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또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학적 고립지역까지, 도시의 다양한 사건들의 특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효율성과 이윤의 논리로 형성되고, 공공 자원과 공간은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도시를 여전히 집합적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도시를 집합적 주체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그 집합을 정치적 활동의 주체(즉, 사회 및 환경 공동체의 주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식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는 어떠한 학문·문화적 변혁을 추구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가 기획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성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아가 이론과 실행에 있어 건축 및 도시 디자인이 갖는 잠재적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에 행동력과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건축과 도시 간에 점진적인 분열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도시와 도시 영토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등장했다. 도시의 형태와 구성 과정에서 건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건축의 주요한 학문적 영역이 외면 받게 되었다. 전례 없는 성장과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 체제의 시대를 맞아 오늘날 도시에 대한 인식은 점차 흐름(flows)과 데이터 시스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시 성공의 척도가 이윤,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놓여 있는 듯 하지만 기후변화, 부동산 시장 위기, 사회적 불평등, 소외 등의 현상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공간, 영토, 지리적 체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로 건축과 도시 디자인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주목되었다.

오늘날 건축이 직면한 과제는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한 본래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공공 공간에서 사회기반 네트워크, 행동주의에서 제도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도구와 방법 및 개입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건축을 ‘객체(object)와 아이콘(icon)’의 차원으로

COLLECTIVE CITY: RECLAIMING THE CITY, REDEFINING ARCHITECTURE

Cities are contested territories, by their very nature spaces of negotiation, multiple and complex subjects, divergent rights, values, claims and conditions.

To understand the city one needs to understand this contradictory nature and to recognize and frame it as a physical and political construct complicit in the right to housing, access to natural and social resources, transportation, political freedom and justice whilst simultaneously pressured by the challenges of internal and global migration, climate change and increasing inequity.

The contemporary city operates as a speculative apparatus, a mechanism of capital, shaped by the logic of efficiency and profit; public resources and spaces are increasingly privatized and conceived of as commodities. Emerging systems are based on a managerial model that privileges corporate and technocratic visions that undermine the collective nature of the city, and challenge both our political and environmental survival. From corporate cities, free-trade zones to geopolitical enclaves, the city is in a deep crisis as to the very nature of its project.

In the wake of global urbanization and the distorted growth of urban centers – cities – architecture has become progressively marginalized from the city's form and processes, increasingly relinquishing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its disciplinary scope. In the context of this continued and unprecedented growth and progressively complex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 contemporary city is

overwhelmingly conceived in terms of flows and data systems with success measured by statistics and metrics.

The urgent challenge is to develop new tools, methods and forms of intervention at multiple scales from the domestic to the territorial scale, from public space to infrastructural networks, from activism to institutional roles, redefining architecture's disciplinary territories as a system of knowledge production. The Seoul Architecture and Urbanism Biennale(SBAU) 2019 claims architecture 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and as an agent in realizing a political and cultural project for the city, reimagining and reconsidering it beyond the object-icon dimension on which it is trapped today.

The SBAU has the privilege to rethink, reimagine and claim back the city as a collective project and to truly interrogate its viability and its construct. These questions could not be more immediate, timely or urgent. The global population tips the balance at 8 billion with more than 70% of people soon to be living in our cities, the transformation and sublimation of our urban centers transgresses comprehensible notions of scale and time, outpacing our hitherto ability to respond and act — we are witnesses to the failure of the modern city.

The biennale is an incitement to demonstrate and evidence what collective space can mean, how we can imagine it as an agent of political action of both of social

한정하는 것을 넘어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축은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여 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의 정치·문화적 목표를 건설하는 주체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이러한 상황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진정한 글로벌 청중과 소통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전통적인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입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하는 상대를 비하하는 태도도 피해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 하에서는 기존의 담론이 확장되고, 예측 불가능 환경에 참여하며, 가장 흥미로운 실험적 시도가 기존의 것들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다.

올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의 집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의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고 구성될 도시를 연구하여 집합이 실제로 도시의 정치적 활동과 변혁의 주체임을 시사 할 것이다. 우리는 공간적 구조의 틀이자 사회적 실천의 양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성에 주목한다. 이것은 도시 민영화, 권력의 편중 그리고 사회·환경적 정의구현에 대한 대응이나 그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목적은 세계적인 차원의 협업과 도시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지배구조, 연구 및 예측,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시 형태와

과정 간의 관계를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 여러 파트너 도시들과의 다국적 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비전, 및 사회적 관행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토론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협업과 참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나아가 도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변혁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비엔날레에서 수용/거부, 토론, 재고할 수 있도록 지난 비엔날레의 성과들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임재용, 프란시스코 사닌 (총감독)

and environmental commons, in order to speculate on the new city. It is a platform to grapple with essential and necessary disciplinary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that must take place to enable us to respond to these challenges and to understand how new collective practices can be mapped, tested, innovated and leveraged to truly gain agency and relevancy in the face of most certain adversity.

SBAU 2019 aims to create a space of research and debate opened to and engaged with a truly global audience. The Biennale will explore the condition of the collective in the city, not as the natural state of the city today, but rather as a condition to be reclaimed and reframed, suggesting that the collective subject is in fact the instrument of political ac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city.

With the city of Seoul as host, SBAU proposes to engage in this global dialogue with partners from multiple cities around the world to identify innovative forms of collectivity as both spatial constructs, forms of speculation and research, modes of governance and new social practices. It aims to map and explore emerging models of collaboration and city making at a global scale. SBAU will develop a continuity building on previous biennales by establishing research agendas and transformative strategies in the city to be taken over, debated, refused or reconsidered in future editions of SBAU.

Jaeyong Lim, Francisco Sanin
(Co-Directors)

주전시장과 프로젝트 현장

서울 역사 도심 동쪽 관문에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쪽 관문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비엔날레의 구심점이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개관된 서울시건축전시관은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전시관으로 시민 모두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며, 우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터에 시민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서울 도시 변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있는 세 곳은 서울의 과거 도시 개발과 현재 도시 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이 세 곳을 연결하는 세운상가와 대림상가가 현장 프로젝트의 장소로 사용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ongdaemun Design Plaza (DDP)
사진 신경섭 스튜디오 Photo by Kyungsub Shin Studio



돈의문박물관마을 Donuimun Museum Village
사진 신경섭 스튜디오 Photo by Kyungsub Shin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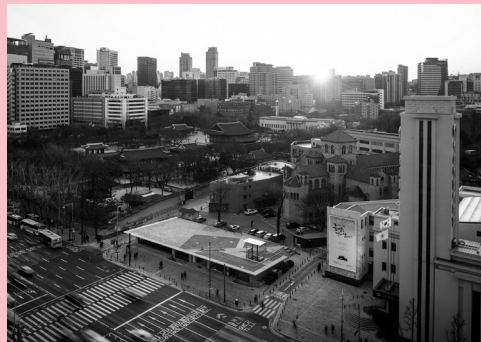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VENUES AND SITES

The main venues of the Seoul Architecture and Urbanism Biennale 2019 include th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nd Donuimun Museum Village located in the centre of Seoul. And Th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is the first exhibition venue for urban architecture in South Korea. Built on the site of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the Hall is a precious cultural asset to be enjoyed by all.

At the East and Western gates of the historic centre these three contrasting sites represent the urban regeneration of Seoul and its urban development. Along the axis connecting these three venues are the Sewoon Plaza and Daelim Plaza sites that will host the Global Studios and Live projects exhibitions.



서울도시건축전시관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사진 이원준 Photo by Hyunjun Lee



세운상가 Sewoon Plaza
사진 신경섭 스튜디오 Photo by Kyungsub Shin Studio

주제전

큐레이터
베스 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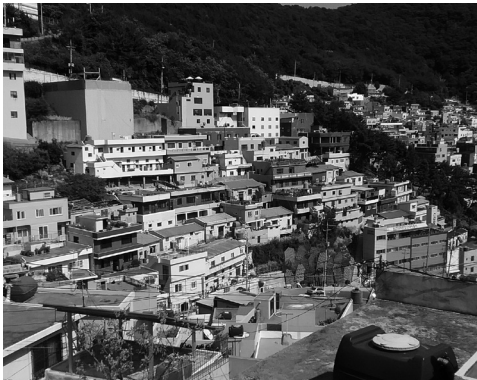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디자인전시관,
디자인둘레길)

“집합도시”는 집합적 실천과 행위가 어떻게 현재 도시의 개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간 생산의 지배적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번 비엔날레는 건축과 도시, 환경의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고 건축의 정치적 동력을 탐색하기 위해서 공존, 사회적 실천, 거버넌스, 연구 및 추측의 새로운 모델을 반추하고자 한다.

주제전은 현재의 도시 구성을 재해석하라는 권유이자, 우선순위를 재배열해보자는 자극제다.

이 때 부동산 투기와 토지 상품화를 통한 개인 및 자본의 성공으로부터 집합적 권리와 도시가 공유 투자라는 논점으로 초점이 변화된다.

본 프로젝트는 세계적 실천의 다양한 규모와 형식에서 도출된 명제와 연구를 병치하며, 잠재적으로 부조화로운 인식론을 중첩해 배열한다. 비엔날레가 남기려는 유산의 의도는 이처럼 융합된 실천과 규모의 교차 지점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현 분야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해체하고 다른 존재 형식에 대한 명제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존재론을 권유하는 것이다.



THEMATIC EXHIBITION

Curator

Beth Hughes

Venu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Design
Exhibition Hall, Design
Path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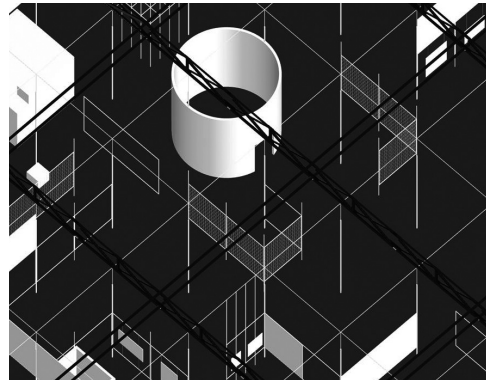
‘Collective City’ seeks to question how modes of collective practice and action can challenge the current paradigms of city development and offer resistance to the dominant systems of spatial production. The biennale seeks to reflect on new models of co-existence, social practice, governance, research and speculation, to suggest alternative concepts of architecture, the city and the environment and to interrogate architecture’s political agency.

The Thematic Exhibition is an invitation to radically reimagine the structure of our cities, a provocation to fundamentally reprioritize, shifting focus from the success of the individual and capital through real-estate speculation and the commodification of land, to foreground collective rights and to claim the city as a shared investment.

Participants’ work ranges from critiques on the contemporary processes of urbanization, exploration of ecological and infrastructural systems and questions of material and production, to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development through typological innovation, new forms of

tenure and landownership, architecture as a form of mediation and consultation, to expanding and defining new territories.

The curatorial project juxtaposes research and propositions from diverse scales and forms of global action, imbricating possibly dissonant epistemologies. The potential richness and legacy of the biennale is what can be revealed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conflated scales and practices, to unravel preconceptions within the field and proffer new ontologies as a space of proposition for new forms of existence.



도시전

큐레이터

임동우, 라파엘 루나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도시전에서는 전세계 약 80여개 도시를 초대하며, 비엔날레의 전체 주제인 집합도시(Collective City)를 바탕으로, 각각의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이슈들을 다루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간의 연결과 집합의 결과물로서의 도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집합적 결과물로서의 도시(City as a Collective Consequence)는 우리의 도시가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집합체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혹은 계획되지 않은 요소들의 개입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임을 보여준다. 도시전이 열리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는 파편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전세계 도시의 상황을 대변해준다.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여러가지 요소들로 다시 서로간에 연결되고 있는 도시들의 상황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의 공간과 중첩된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은 집합적 결과물로서의 도시가 어떻게 서로간에 분리되고 또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될 예정이다.



CITIES EXHIBITION

Curator

Dongwoo Yim, Rafael
Lu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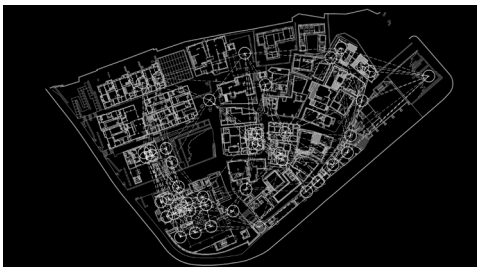
Venue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Under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Collective City,” the SBAU 2019 Cities Exhibition is a platform for discussing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themes raised by approximately 80 participating cities. The goal of this year’s discussion is to better understand the collective consequences of connections and meetings between cities.

This concept of “cities as a collective consequence” highlights cities not only as an aggregated environment but as living, dynamic systems that are constantly changing as a result of factors that are, in some cases, unintentional or unplanned. The fragmented nature of Donuimun Museum Village, reflects the contemporary condition of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ligning with the fact that, despite the physical boundaries that separate cities, there is a multitude of common questions, experience and overlap that links them to create a shared territory for speculation and debate.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SBAU 2019 aims to demonstrate how cities as a collective consequence are simultaneously separated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at any given time.



글로벌 스튜디오

큐레이터

최상기

장소

세운상가 세운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글로벌스튜디오(Seoul Biennale Global Studios, SBGS) 세션은 국내외 교육기관의 연구자와 학자의 참여를 통해 주제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비엔날레에 중요한 담론과 비전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스튜디오는 “집합 도시(Collective City)”라는 비엔날레의 공동 주제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주제는 건축과 도시라는 학제의 학술적 이슈와 전문적 관심을 연결시키며, 광범위한 연구활동은 물론 사회 및 물리적 측면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 형태의 디자인을 표방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우리의 구축 환경에 형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동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강력한 물리적 존재감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SBGS는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과 접근은 집합 행위가 어떻게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고 건축을 매개로 취하는 사회에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집합 공간은 상호작용에 대한 창조적 전략, 침범, 사회적 경계의 교환을 통해 작용하고 발전한다. 이러한 집합 행동의 패턴은 전통과 현대적 의미에서 시장과 공공 도로, 주택, 기타 구조물 또는 기반시설의 다양한 물리적 모델에서 추출될 수 있다. 도시는 또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적극적인 집합적 절차로부터 공익을 취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집합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 도시를 재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규칙과 사회적 합의 사이에 균형을 이뤄준다.



GLOBAL STUDIO

Curator
Sanki Choe

Venue
Sewoon Plaza
Sewoon Hall

The Global Studio exhibition plays a meaningful role in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he theme through the engagement of talented students and academics from renow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e theme calls for a wide range of research and design proposals that are both materially and socially grounded, bridging the academic and professional interests of the disciplines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The works produced by the studios convey a strong physical presence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ocio-economic drivers that give form to our built environment. The exhibition functions as a research platform that supports varied interpretations and approaches to collective actions, exploring the possible contribution to urban vitality and potentially transformative impact on society.

Collective space is initiated, activated and evolves through creative strategies of that interact across, intrude into, manipulate and exchange social boundaries. The

patterns of such collective actions can be understood and learned from referring to various historic and contemporary precedent models such as: marketplaces, public streets, housing, and other structures or infrastructures. The city also benefits from innovative governance models and active collective processes that balance out the rules and social agreements that contribute to reshaping the city.



현장프로젝트

큐레이터

장영철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세운상가,

대림상가 일대

시장은 집합으로서 도시의 형태를 가진다. 도시는 교환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시장의 밀도가 높아지고, 시장 주위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현재 도시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도시의 형태는 산업혁명 이후의 철도와 도로의 발달, 분업화된 산업구조, 집약된 자본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안에 원초적 모습의 전통시장은 어느 도시나 아직도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초적인 집합 도시인 전통 시장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도시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우리의 서울은 외적으로 글로벌하지만, 내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미시적으로는 집합적이나, 거시적으로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조화롭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산재한 도시이다. 이런 모순적인 도시문제로부터 도시적 대안을 찾아보고, 의논하며, 배우고, 알아가며, 체험하며, 즐기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집합적 도시의 특성을 가진 전통시장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위를 포함하며, 시민들이 더욱 좋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장소가 되기 위해서 도시건축 디자인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장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사진 와이즈 건축
Photo by WISE architecture

LIVE PROJECTS

Curator

Young Chul Jang

Venue

Seoul Museum of
History, Sewoon Plaza,
Daelim Plaza

The markets of Seoul aggregated as the city developed and took shape, emerging from a space of exchange. As the density of the market increased and added on complexity and function, the markets merged with the form of the surrounding city, currently comprising a large proportion of central Seoul today.

As we witness the rapid and radical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city, the market has maintained a consistent presence and typology in many cities across the globe, serving as important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for our dense urban cores.

The live projects exhibition explores the challenges currently facing our cities from this important and universally recognizable urban form.

While Seoul is a global and international city, it grapples with issues of social isolation and fragmentation that is reinforced through physical separation and boundaries. The exhibition explores urban alternatives in Korea that can strategically and innovatively address these contradictory concerns of the

contemporary condition. Situated within the heart of the city itself it is actively engaged with the local citizens of Seoul, tackling the most pertinent questions of the city.

The marketplace serves as an example and case study of how questions of the collective have evolved and the socio-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impact of these market models. These spaces also offer the opportunity to study and understand how architecture and urbanism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se traditional spaces of trade and exchange and for them to continue to be enjoyed by everyone. Public engagement in these spaces and the exhibition is central to the project.



사진 노경
Photo by Kyung Roh

시민참여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장소

DDP 살림1관, 디자인둘레길

- 비엔날레 강연을 통한 다양한 도시·건축 이슈 이해 및 시민참여 기회 제공
- 비엔날레 주제강연, 특별강연, 전시연계체험프로그램, 서울시 건축학교로 구성

영화영상프로그램

- 서울국제건축영화제와 연계하여 영화를 매개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영화상영, 토크, 포럼 야외상영과 같은 영화관련 이벤트를 통해 비엔날레의 주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동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투어프로그램

장소

서울비엔날레 주 전시장 및 인근 지역

- 시민들과 함께 도시, 건축 장소들을 답사하며 이론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능동적인 체험 제공
- 집합도시 서울투어, 도슨트투어, 스탬프투어

이벤트

- ‘서울’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장 마련
- 야외영화상영회, 비엔날레 지도 만들기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제공



사진 신경섭 스튜디오 Photo by Kyungsub Shin Studio

PUBLIC PROGRAM

EDUCATION PROGRAM

Venue

DDP DesignLab Academy Hall,
Design Pathway

- Provides opportunities for public participation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various urban and architectural issues through biennale lectures
- Includes biennale themed and special lectures, hands-on exhibit programs, and the Seoul School of Architecture project

FILM AND VIDEO PROGRAM

- In connection with the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wider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of Seoul through the films is promoted
- Provid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Seoul Biennale's theme through film-related events such as film screenings, film talk, forum, and outdoor film screening
- Co-Host : Korea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TOUR PROGRAM

Venue

Seoul Biennale Venues and nearby sites

- Providing a dynamic experience that helps local residents in understanding the theme of the biennale through visiting the city and the architectural sites
- Collective Seoul City tour, Docent tour, Stamp tour

EVENTS

- A festival of events in the city for people to enjoy various events in the city of 'Seoul'
- An activated program that expands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biennale such as outdoor film screenings and biennale map making



사진 신경섭 스튜디오 Photo by Kyungsub Shin Studio

연계 전시

평양 일상

큐레이터
윤혜정, 임동우

기간
2019.9.7. - 11.10.

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주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일상의 평양의 모습을 담고 전시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이질적인 평양의 모습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양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남북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교류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평양의 방”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공간을 세팅해 놓고, 프로젝션 기법을 활용하여 서울의 풍경을 보여준다. 이는 관람객이 참여하는 순간 서울의 풍경이 평양의 풍경으로 바뀌며, 방안의 사물을 역시 북한의 물건들이 프로젝션 되는 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평양 속의 나”에서는 크로마키 스크린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관람객의 모습이 평양의 일상의 공간 안에 투영되어 마치 관람객이 평양에서 평양 주민들과 함께 걸어 다니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는 서울과 평양”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종이에 건물을 그리고, 그것이 서울 혹은 평양의 공간에 디지털화되어 나타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은 현재의 평양 혹은 서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려 나가는 각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RELATED EXHIBITIONS

DAILY LIFE IN PYEONGYANG

Curator

Hyejung Yoon,
Dongwoo Yim

Period

7th September –
10th November, 2019

Venu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of
Urban Regeneration

This exhibition displays everyday life in Pyeongyang to show an image of the North Korean city that Seoulites can relate to, rather than emphasizing its striking differences. This lays the groundwork for the exhibit's goal of restoring a sense of connection and homogene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exploring approaches for mutual exchange. In the "Pyeongyang Room", a familiar image of Seoul is shown on a projector screen, which then changes to an image of Pyeongyang once visitors enter the room. Even the objects in the room are replaced with projected images of everyday objects found in Pyeongyang. Meanwhile, the "Me in Pyeongyang" exhibit uses a chromakey screen and other equipment to project the image of visitors onto various backdrops of everyday life in Pyeongyang. This provides participants with the virtual experience of walking the streets of Pyeongyang alongside North Korean citizens. Lastly, at the "Drawing Seoul and Pyeongyang" exhibit, visitors have the opportunity to draw buildings on paper and watch their drawings come to life through digitalization technology. In this way, visitors can use their imaginations to create unique images of Seoul and Pyeongyang that may differ from how the two cities actually look today.

연계 전시

시간여행 : 낯고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발견

기간

2019.9.7. - 11.10.

장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2층 휴게공간 및 통로
전시실)

주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는 2001년 한옥보전 및 진흥정책에서 2015년 건축자산법 제정에 따라, 한옥 위주에서 근현대 건축물 등 역사문화적 건축자산 전반으로 보전 및 진흥정책을 확장해 가고 있다.

건축자산이란 비문화재이지만, 서울의 특성과 시대적 층위를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최근 체부동 성결교회와 캠펠 선교사사택, 그리고 대선제분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서울이라는 시간의 커를 담고 있는 다양한 옛 건축물, 공간환경 등이 창의적으로 활용되고 재생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전시는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고, 미래에도 유효한 도시기능을 담당하는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전시 주제는 <시간여행 : 낯고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발견>이다. 낯고 오래된 것으로만 인식되던 건축자산의 사회적, 경제적, 경관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건축자산이 서울시민들의 삶, 일상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더하며, 서울이 새롭게 변화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전시는 역사도시 서울과 공존하고 있는 건축자산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미래의 탄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 EXHIBITIONS

TRAVELING THROUGH TIME: DISCOVERING THE NEW IN THE OLD AND FAMILIAR

Period

7th September –
10th November, 2019

Venu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Lower Level 2, Break
Area and Exhibition
Hallway)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of
Urban Regeneration,
Division of Hanok
Heritage Preservation

Following the hanok preservation and promotion policies introduced in 2001,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Architectural Assets in 2015, expanding the scope of preservation and promotion from just hanok to include all architectural assets bearing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such as contemporary architecture.

Although architectural assets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cultural assets, they are highly valued for displaying Seoul's progression over time through the differing gen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styles, spatial and environmental designs, and infrastructure. Recently, the Chebudong Evangelical holiness Church, the Campbell Missionary House, and the Daesun Flour Mill Factory were designated as exemplary architectural assets, setting in motion Seoul's efforts to preserve pieces of its past in the form of older buildings and spaces and transforming them in creative ways. Not only do these efforts offer ways to reuse old spaces, but also they help promote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al assets and raise awareness of their value.

This exhibition aim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architectural assets and emphasize the value they have to offer in revitalizing cities and maintaining their functions and identities as important urban area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Traveling through Time: Discover the New in the Old and Familiar", refers to finding the social, economic, and scenic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that are misunderstood as simply old and outdated. The exhibition highlights how architectural assets contribute to the diversity and dynamic nature of Seoul and its residents, metaphorically representing how Seoul can be seen in a new light. The overarching goal of this exhibition is to put forward sustainable future of Seoul by sharing with visitors the message of connecting past and future, delivered by the architectural assets that coexist as part of Seoul's historical urban identity.

연계 전시

바우하우스 미래

큐레이터

김상규

기간

2019.9.5. - 9.29.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아카이브)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한국디자인사연구소

바우하우스 백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바우하우스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전시를 기획한다. 그런데 이 전시는 바우하우스 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우하우스에 대한 단순한 오마주나 객관적인 접근은 아니다. 오히려 바우하우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디자인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이 전시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바우하우스가 한국 사회와 디자인에 미친 영향, 한국 사회와 디자인에 수용된 바우하우스의 흔적을 포착함으로써 바우하우스 자체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거꾸로 한국 디자인의 얼굴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바우하우스라는 거울에 비춰본 한국디자인의 얼굴 확인하기, 또는 한국이라는 강(江)에 비친 바우하우스라는 달(月)의 모습, 나아가 달과 강 모두 살피기인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오늘날 창조적인 문화 독해의 한 방식이 아닐까한다.

RELATED EXHIBITIONS

BAUHAUS MIRROR

Curator

Kim Sang-kyu

Period

5th September –
29th September, 2019

Venu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rchive)

Hosted by

Seoul Design
Foundation

Organized by

Korea Design
Research Institute

In celebration of the Bauhaus school's 100th year anniversary, this exhibition aims to take a look back at the meaning of Bauhaus in the context of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 main purpose is to commemorate 100 years of Bauhaus, this exhibition does not do so by taking an objective approach or simply paying homage to the school. Rather,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 exhibition, if anything, focuses more on Korean design than it does on Bauhaus itself. The expectation of the Bauhaus Mirror exhibition is to raise awareness among visitors of the influence that Bauhaus had on Korea,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traces of Bauhaus teachings and style imprinted upon Korean society and design. Through this, visito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not only about Bauhaus style, but also to better understand the true identity of Korean art. In other words, this exhibition is a metaphorical presentation of Korean art and Bauhaus as a reflection and a mirror or as a river showing the reflection of the moon above, respectively, for visitors to observe. In a way, this approach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e modern emphasis on understanding culture in a creative way.

연계 행사

2019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천의영

기간

2019.9.6. - 9.22.

장소

문화비축기지,

서울시청 로비

주최

서울특별시

열린 공간

지난 4-5세기의 도시 공간 진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정 공간의 번성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참여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의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새로 생기는 많은 주거들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섬들로 만들어 지면서 사회와의 연결을 줄이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며 더욱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도시의 모습도 아니다.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일본의 소도시인 다케오의 시립도서관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작은 도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365일 운영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열린 공공 공간의 혁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이나 미국 동부의 도시들은 역사적 제약을 갖고 있지만 서부의 실리콘밸리와 시애틀이 기존 도시의 제약과 한계를 벗어난 디지털 도시로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또 다른 ‘열린 공간’의 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 서부의 이런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기존 사회와 다른 개념을 시도하기가 자유롭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집합도시(Collective City)라는 서울 건축비엔날레의 주제와 큰 틀에서 함께 호흡하며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작은 ‘열린 공간’에 주목하며 서울건축문화제의 전체행사를 준비하고자 한다.

RELATED EVENTS

2019 SAF (SEOUL ARCHITECTURE FESTIVAL)

Co-directors

Chun, Eui Young

Period

6th September –
22th September, 2019

Venue

Oil Tank Culture Park,
Seoul City Hall lobby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w Open Space

According to the history of urban spatial evolution in the last 4th and 5th centuries, the prosperity of a particular space was directly related to the growth of new open spaces, which provided more people with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and benefits. However, many of the new dwellings around us are being made into the gated community and it caused reducing our connection to society. It is not a desirable and, moreover, not a future city we seek. The municipal library of Takeo, a small Japanese city, shows an open, privately run model of public space in that it will cut budge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while operating 365 days in smaller, shrinking cities. New York and other US cities on the East Coast have historical constraints, but Silicon Valley and Seattle on the West Coast are becoming models of another "open space" that opens up new possibilities as digital cities beyond the constraint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cities. It may be because cities on the West Coast are relatively free to try new things different from existing societies. In this regard, Seoul Architecture and Culture Festival is in line with the theme of Seoul Biennale as a Collective city, and aims to prepare for the event by paying attention to the open space in the city of Seoul.

개·폐막 주간 행사

개막주간 행사

기자팸투어

일시

2019.9.5. - 9.6.

대상

초청 기자

장소

서울비엔날레
주 전시장 및 현장

사전 오프닝

일시

2019.9.5. - 9.6.

대상

초청자, 참여작가 및
관계자

개막포럼

(세계총괄건축가 포럼)

일시

2019.9.6.

대상

일반시민

개막식

일시

2019.9.7.

대상

초청자, 참여작가 및
관계자, 일반시민

글로벌스튜디오

심포지움

일시

2019.9.8.

대상

참여교수 및 학생,
일반시민

폐막주간 행사

폐막식

일시

2019.11.10.

대상

초청자, 참여작가 및
관계자, 일반시민

OFFICIAL EVENTS

OPENING WEEK EVENTS

Press Tour

Date
5th – 6th September,
2019

Attendance
Invited Press
(invitation only)

Venue
Seoul Biennale
Venues

Pre-Opening

Date
5th – 6th September,
2019

Attendance
VIP, Participating
Artists (invitation
only)

Opening Forum
(City Architect
Forum)

Date
6th September,
2019

Guests
Open to Public
(booking required)

Opening
Ceremony

Date
7th September,
2019

Guests
VIP, Participating
Artists, Open to
Public

Global Studio
Symposium

Date
8th September,
2019

Guests
Participating
Professors and
Students, Open to
Public

CLOSING WEEK EVENTS

Closing
Ceremony

Date
10th November,
2019

Guests
VIP, Participating
artists,
Open to Public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19

2019.9.7. - 11.10.

7th September -
10th November, 2019

전시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대림상가,
서울역사박물관 등

Venu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Sewoon Plaza,
Daelim Plaza, Seoul Museum of History,
etc.

주최

서울특별시

Hos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주관

서울디자인재단

Organized By

Seoul Design Foundation

공식 홈페이지

www.seoulbiennale.org

Official Page

www.seoulbiennale.org

문의

seoulbiennale@gmail.com

Inquiry

seoulbiennale@gmail.com

페이스북 @seoulbiennale

인스타그램 @seoulbiennale

유튜브 seoulbiennale

Facebook : @seoulbiennale

Instagram : @seoulbiennale

Youtube : seoulbiennale